

창극으로 만나는 '조선 후기 화가 최북'

무주군·전북도립국악원, 7월 17일 무주군민의 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서 '최북, 그리움을 그리다' 공연

무주군이 전북도립국악원과 함께 하는 창극 '최북, 그리움을 그리다' 공연(7월 17일 오후 3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약 120분)을 앞두고 사전 예약(선착순 250명)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 제외)로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063-320-2541, 2543~4)으로 하면 된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김성욱 팀장은 "이번 '최북, 그리움을 그리다'는 조선시대 무주출신 화가인 최북의 삶과 사랑을 창극으로 풀어낸 것으로 무주군과 전라북도립국악원이 함께 협업해 제작을 했다"며 "7월 17일은 무주군민의 날로 군민 여러분이 특별한 시간

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교통편 등 편의제공은 일절 없으며 관람객들은 공연장에서 마스크 착용과 관람석 간 띄워 앉기, 출입 확인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한편, 창극 '최북, 그리움을 그리다'에서는 고창 조선 후기 화단의 거장이자 기인으로만 알려져 있는 호생관 최북의 삶의 이면이 그려질 예정이다. 85명의 창극단과 관현악단, 무용단 등의 소리와 몸짓으로 표현될 최북의 못 다 이룬 사랑과 그녀(설아)를 향한 그리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북, 그리움을 그리다' 포스터.



고창 보물 '금동신발' 복제품 테마전

군청 1층서 7월말까지

고창군이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이 보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7월말까지 고창군청 1층에서 금동신발 복제품을 활용한 소규모 테마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봉덕리 고분군은 고창군 아산면에 위치한 흙무지무덤(墳丘墓)으로 이 중 2009년에 발굴조사된 봉덕리 1호분에서 돌방무덤 5기 등 다수의 매장시설이 확인됐다.

특히 봉덕리 1호분의 4호 돌방무덤은 도굴되지 않았고, 내부에서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금동신발을 포함한 '은 관 꾸미개', '청자항아리', '청동잔'과 '진발집' 등 다수의 유물이 확인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출토 유물을 통해 고창 마한세력과 백제 중앙의 관계, 중국, 왜와의 대외교류를 포함한 국제관계를 살펴볼 수 있어 역사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다.

보물로 지정된 금동신발은 의례용 신발로

서 발목에 깃이 있으며, 신발 바닥에는 1.7cm 높이의 뾰족한 못 18개를 규칙적으로 붙였다. 옆면을 거북이 등껍질 문양으로 나누고, 그 안에 용, 사람 얼굴모양 새, 새 등을 새겼다. 화려한 문양과 정교한 제작기법, 얇은 금동판을 다루는 기술에서 당시 고도로 발달된 금속공예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까지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 중 가장 완벽한 형태로, 5세기 고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나주 정촌고분 출토품과 함께 지난 4월 보물로 지정됐다.

고창군 나철주 문화유산관광과장은 "고창의 보물을 주민들과 조금이나마 가까이 하기 위해 복제품을 활용한 테마전을 기획했다"며 "고창의 마한문화를 보여주는 고창 봉덕리 고분군 출토 금동신발의 보물지정을 통해 고창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석 기자

"자매결연도시 중국 서주시 아동 미술작품 만나요"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서
15일까지 다양한 작품 30점 전시

정읍시와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강소성 서주시 아동들의 미술작품 전시회가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열리고 있다.

정읍시가 후원하고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읍지회와 한국미술협회 정읍지부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들의 작품 속에 담겨있는 문화와 예술적 가치를 양국이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아동화 교류전을 통해 정읍시와 중국 서주시가 자매도시로 예술 분야 상생 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코자 추진하게 됐다.

전시회에서는 중국 서주시 아동들의 다양한 미술작품 30점을 만나볼 수 있다.

아동들의 그림답게 흰색과 까망, 노랑, 초록, 파랑 등의 원색이 어우러진 거침없는 붓질은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은 채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는 아동들의 정신세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시는 중국 서주시 아동들의 미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시민들이 예술적 감각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예술의 혼이 살아 있는 정읍에서 중국 서주시 아동화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양국이 예술 분야 상생 발전의 기틀을 확



정읍시와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강소성 서주시 아동들의 미술작품 전시회가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열리고 있다.

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와 서주시는 2000년 9월 27일 자매도시를 맺었다.

그동안 상호교류단 32회 방문과 중·고등학교 홈스테이, 한문화축제, 체육 대표단 방문 등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익산 보석박물관, 지역 주얼리 산업체 대표제품 전시회

익산 보석박물관이 귀금속·보석산업의 발전 역사와 지역 주얼리 산업체의 대표제품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를 연다.

시는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보석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보석의 도시 익산, 주얼리 산업체 대표제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에서 선정한 우수제조업체 5개 기업과 귀금속·보석 가공 생산 기업 14개 업체 등의 차별화된 독자적 디자인과 탄소융복합재와 같은 특수소재를 활용한 대표제품이 전시·홍보된다.

익산은 백제시대 찬란한 귀금속·보석 문화 유적의 오랜 역사를 지닌 귀금속·보석산업의 요충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2009년 1월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 해체 과정에서 국보급 사리장엄의 발굴로 백제 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이 입증됐으며, 오래전부터 뛰어난 귀금속·보석 가공의 원천

인 곳으로 꼽힌다.

전국 유일의 귀금속·보석 가공단지로서의 명성을 잃지 않고 있는 익산 귀금속·보석 공업단지는 지난 1975년 귀금속 1·2공단 건립을 바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도 익산은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 육성사업으로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집적산업센터 건립, 주얼리 유턴 기업 유치 등을 진행해 지역특화산업인 주얼리 산업을 고도화했다. 현재는 왕궁보석가공단지 내 보석마을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발전 역사와 지역 귀금속·보석가공 생산 기업의 대표제품을 알릴 기회다"며 "주얼리 관련 기업 대표제품 홍보로 인한 박물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상승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